독서 생활화로 학생 문해력 높인다

도교육청, '책읽는 학교문화 만들게 프로젝트' 운영
총 210학급에 독서구입비 등 지원… 15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책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급 단위의 독서생활화로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함이다.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 학급에서 아침 독서, 정규 교육과정 내 독서수업, 수업 시작 전 5분 독서 등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고전·그림책 분야로 테마를 나눠 시 읽는 교실 총 90학급, 고전이 있는 교실 총 80학급, 그림책 낭독 교실 총 40학급 등 총 210학급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급에는 도서구입비와 간식비 등을 지원한다. 또 시낭송 강사 지원, 고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등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급은 테마별 학급독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7~15일까지 전북교육청 공모사업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테마별 학급독서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 전체 학교로 일반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오는 23일 최종 대상 학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지속적인 학급독서 활동을 통해 책을 가까이하고, 평생독서 습관을 길러주고자 한다"며 "테마별 학급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독서를 기반으로 한 학급별 소통과 공감 확대 및 학습결손 회복에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서거석 교육감, 서명운동 동참

서거석 교육감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지난 5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 함께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이번 챌린지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자체는 만일에 있을 방사능재난에 대비해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원전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다음 참여자로 우범기 전주시장,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이만수 전주교육장 등을 지명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초등교사 간 영어수업 사례나눔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7월 초등교사 간 영어수업 사례나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업나눔 연수는 교사들의 영어 수업공개 또는 영어학습 프로그램 사례나눔을 통한 학생 맞춤형 수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 교원들은 해당 학교(교실)을 직접 방문해 수업을 참관한 후, 교사 간 협의회를 통해 영어 수업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초등영어 수업나눔 연수를 통해 교사 간 다양한 영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불어 학생들이 즐거운 활기찬 영어 수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사들이 주체가 돼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영어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초등교사 간 영어수업 사례나눔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전주하가초등학교 강당에서 실시한 영어수업.

전북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가 지난 5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북학생의회 정기회 개최

7개 안건 현황 · 부서 의견 등 논의

전북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가 지난 5일 창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전북학생의회에서 제안한 7가지 안건에 대해 전북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출석해 안건에 대한 현황과 부서 의견, 예산 반영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학생 회장단 선거공약 이행비 지원 안건은 2024년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 예정이다.

이어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재정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청-도청-14개 시·군간 재원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생의회에서 제안한 등·하교 대중교통(버스)카드 지원방식은 도내 대중교통 이용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전북도청 교통정책과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권 보장은 수요자의 요구뿐 아니라 평가 시행이 교육과정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는 희망 학생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지훈 학생의원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엿보여 무척 기대되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헌호 학생의장은 "올해 학생의회를 처음 운영해보는 시기라 시행착오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우리 학생의원들의 긴밀한 논의과정과 집단사고를 통해 전북학생의회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그동안의 과정들이 모두 처음이다 보니 서툴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는 우리 학생의원들의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학생의원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이 2024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5일 오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가 전북대를 방문해 양오봉 총장과 양국 대학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 "영국 주요대학과 교류 확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영국 주요 대학들과의 국제교류 확대에 나선다.

지난 5일 오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가 전북대를 방문해 양오봉 총장과 양국 대학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이날 양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북대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고, 영국의 주요 대학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환담에서 양 총장과 콜린 크룩스 대사는 영국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북대 학생들이 국제무대로 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뜻을 같이 하고, 공식 업무협약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콜린 크룩스 대사는 이날 오후 2시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전북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특강 시간도 가졌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에서 대사를 역임한 크룩스 대사는 당시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과 영국과 남북한의 관계 및 외교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중 하나인 전북대에서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다"며 "전북대가 영국의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전북대는 다양한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컬 대학으로 나아가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영어 강의 신설 등을 통해 국제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크룩스 대사님의 이번 방문이 우리대학의 발전과 국제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中 태원사범대학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중국 태원사범대학(총장 량웨궈 梁衛國)이 공동 개최한 '제1회 실크로드문화예술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2~3일 이틀 간 태원사범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지난해 우석대학교와 태원사범대학이 '국제실크로드문화예술연구소' 공동 설립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국제학술지 창간 등에 대한 국제교류 협정 체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제학술회의에는 한국과 중국·우즈베키스탄·영국·베트남·이란 등 6개국에서 3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해 실크로드를 통해 전개된 동서 문화예술 교류 현상에 대해 다양한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홍철 실크로드영상연구원장은 "양교가 추진한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태원사범대학 량웨궈(梁衛國) 총장님과 한샤오리(韓曉莉) 원장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마무리돼 감사하다"면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바탕으로 '국제실크로드문화예술연구' 영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중국과 일본, 이란 등의 연구소와 협력해 실크로드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원단체 "정상적 교육활동도 아동학대 왜곡? 안될말"

"학부모 악성민원 무분별 고소고발 인한 교권침해도 늘어나 추락한 교권 바로잡고 학교 교육력 세워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도내 교원단체들이 지난 5일 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교총은 지난 5일 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교총에서 소송비 및 경찰조사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들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의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돼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악성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교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안에서 학교장은 학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화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학부모는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학교장이 공직자임을 이용해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인 주변 지인을 통한 압박과 전화, 방문, 감사요청, 녹취록유포,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한 모욕이 지속됐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교원지위법'이 무색해지도록 교권이 추락한 현재,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는 사회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고, 학교의 교육력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 되지 않는 학교 교육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에서 아동학대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연 교류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김흥종)이 학·연 교류를 통한 양 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오후 4시 전북대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김흥종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국내·외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조사하고 연구·분석해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정립에 힘쓰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공동으로 활용해 양 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경제 관련 분야에서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동 연구와 관련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상호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지적 자산과 인력 등을 교류하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장은성 기자